

十六世紀・十七世紀 刊行「心經附註」有後論本の 版本

—退溪書誌의 研究 其四—

尹 炳 泰*

目 次

I. 緒言	Ⅲ. 17世紀 版本
Ⅱ. 16世紀 版本	Ⅳ. 結言

I. 緒 言

이 研究는 前稿에 이어 네번째로 發表하는 退溪書誌에 관한 研究이다. 첫 번째와 두번째 論稿에서는 退溪書誌 研究의 目的과 方法, 그리고 《聖學十圖》에 대하여 論及하였다.⁽¹⁾ 세번째 論考에서는 退溪와 《心經附註》와의 關係 그와 《朱子書節要》라고 〈後論〉 以前의 版本에 대하여 論及하였다.⁽²⁾

이 研究에서는 退溪思想의 形式에 있어, 특히 그의 心學思想에 影響을 미쳤던 《心經附註》에 退溪의 〈心經後論〉이 붙어있는 版本中에서 十六世紀와 十七世紀에 刊行된 版本에 대하여 究明하고자 하는 것이다.

明宗 21년 丙寅(1566) 10월에 退溪는 《心經附註》의 〈後論〉을 지었다. 이 〈後論〉은 退溪가 四書나 《近思錄》과 마찬가지로 尊信하였던 《心經附註》의 撰者 篁墩 程敏政의 人物됨과 學問에 關하여 非議할 點이 있는 것을 알고 크게 傷嘆하면서 《心經》 그 自體는 神明과 같이 恭敬하고 父母와 같이 尊信하여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면서 쓴 것이다.

退溪가 後論을 짓기 以前에도 우리나라에서 刊行된 《心經附註》는 여러 版이 있으나, 本稿에서는 〈後論〉이 붙어있는 版本만을 考察하기로 한다.

退溪의 〈心經後論〉을 붙여 最初로 刊行한 책이 어떤 版本인지 알 수 없으

* 慶北大學校 文理科大學 助教授

(1) 尹炳泰, “退溪書誌의 研究,” 退溪學研究, 第四輯, (1976. 12), pp. 87~152.

尹炳泰, “退溪의 著書와 그 刊行〈朱子書節要를 中心으로〉,” 退溪學研究, 第五輯, (1978. 2), pp. 83~155.

(2) 尹炳泰, “退溪와 心經附註,” 圖書館學論集, 第五輯, (1978), pp. 67~89.

2 도서관학 논집

나 實査가 可能하였던 文川郡 刊本을 筆頭로 하여 文獻上으로나 實物이 現存하고 있는 版本들을 刊行된 世紀別로 나누어 刊行된 順序에 따라 評論할까 생각한다.

II. 16世紀 版本

1. 明宗21年(1566)頃? 文川郡刊 木板本

이 책은 그 實物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朝鮮典籍誌》에 의하면 國立中央圖書館, 海軍士官學校圖書館,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 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潤松文庫, 그리고 山氣文庫 등에 所藏하고 있음이 알려졌다.⁽³⁾ 그 중에서 實査한 것은 成大本과 國立中央圖書館藏本이다. 成大本은 文谷 金壽恒의 舊藏本으로, 「文谷之印」 등의 印記가 있는 木板本으로 4卷1冊이며, 그 크기는 세로가 26.7cm 가로가 17.7cm인 線裝 方冊本이다.⁽⁴⁾ 그 編綴한 차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心經附註序	2張
心經總目	5張
[心經序後](版心題)	3張
心經附註卷一	29張
心經附註卷二	30張
心經附註卷三	24張
心經附註卷四	30張
心經後論	5張
計	123張

그리고 〈心經後論〉의 마지막 張인 第5張 뒷面에 「文川郡新刊」이라는 刊記가 雙邊欄속에 大字로 雕刻되어 있다. 編綴의 차례에 있어서, 國立中央圖書館藏本은 〈心經總目〉과 〈心經序後〉의 차례가 서로 바뀌어 있다.

이 文川郡刊本の 卷之· 뒷張 앞面的 版式을 보면 아래와 같다.

四周雙邊, 半匡: 19.9×14.3cm, 有界, 10行20字.(小字雙行)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3) 尹炳泰, 朝鮮典籍誌, (祖版中)

(4) 請求記號 貞-22.5- 卷終부-3.

의 版式을 보아 알 수 있듯이, 光州刊本이나 平壤刊本과 달리 行字數가 10行 20字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어는 前者들이 明에서 가져온 10行23字本을 充實하게 지켰는 反面, 文川郡刊本은 새로운 體裁로 改書한 版下本을 썼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 文川郡刊本 以後에 우리나라에서 刊行된 거의 모든 版本들이 10行20字를 固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文川郡刊本의 影響이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文川郡刊本에는 文川郡에서 刊行하였다는 刊行場所의 表示는 있지만, 正確한 刊行年度나 刊行 關係官들의 記錄이 없다. 그런데 退溪의 <後論>의 날자가 있어, 이 年月로서 刊行年度를 막연하게나마 여러 圖書館의 目錄에서는 推定하고 있다.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에 있는 一本(請求記號 222.5—심경부조)의 卷末에 “時先生年六十六歲刊文川郡” 이라는 글이 墨書되어 있다. 그 책에는 刊記가 전혀 없고 또 版式이 壬辰戰以後版으로 보이니, 이는 文川郡刊本에 關한 事實을 記錄한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文川郡刊本은 明宗21年(1566)頃에 退溪가 66歲이든 當時에 刊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墨書의 記錄만으로, 文川郡刊本의 年度를 推定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것 같다. 왜냐하면, 만일 이때 文川郡에서 刊行하였다고한다면 退溪가 <後論>을 지은 그해 10月直後の 일일것인즉, 그때 咸鏡道觀察使는 洪曇인바 그가 安東 陶山에 있으면서 晦齋의 行狀을 짓고 또 晦齋의 文集을 校正하고 있을 때인만큼, 退溪의 弟子나 親友도 아닌 그가<後論>을 지은 直後에 <後論>을 入手하여 곧 刊行하였다고 보기에 는 힘든것 같다. 當時의 文川郡守가 누구였는지 資料가 없어 알아보지 못하였지만이 文川郡守의 이름이라도 알려지면 當時에 文川郡에서 《心經附註》를 刊行하게된 經緯가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明宗21년에 文川郡에서 刊行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推定으로 定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文川郡刊本이 校書館刊本이나 그 以後의 刊本의 影響을 받은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 版式을 보아 證明할 수 있으며, 도리어 影響을 주었다는 쪽이 맞는것 같다.

2. 宣祖3年(1570)頃 慶州刊 木板本

慶州에서 刊行한 《心經附註》가 있었던 것은 宣祖3年庚午(1570)에 尹根壽에게 보낸 答書에서, 退溪가 具景瑞가 보낸 《心經》의 疑訂에 대하여 달한 다음

…但混所考 據乃慶州新刊本 訛誤最多 所不知公所訂本 是何本耶… 所以只據慶本

4 도서판학 논집

者今在山舍…⁽⁵⁾

라한데서, 慶州에서 새로히 刊行한 新本の 《心經附註》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慶州刊本에는 訛誤가 많았음은 前記 書翰에서도 指摘하고 있거니와, 退溪는 이 書翰의 〈別紙〉⁽⁶⁾로서 一卷부터 四卷까지 무려 34個處나 있는 틀림을 써서 보내고 있다.

退溪는 돌아가시기 몇일前까지도 《心經附註》를 校訂하고 이를 板木이 있는 慶州로 보내어 板本을 고치게 한것 같다. 《退溪先生年譜》에 있는 〈言行總錄〉에 보면

…又於易簣前數日 猶令取所訂心經附註 誤字處送 于東都 改正板本…⁽⁷⁾

이라 있어 알 수 있다. 退溪가 尹根壽에게 보낸 校正處를 現行 10行17字本과 맞추어 보면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慶州에서 刊行한 책은 10行17字本이 아닌 行字數를 가진 책 같다. 退溪가 手澤하였던 책으로 보이는 《心經附註》는 李仁哉씨가 所藏하고 있는 것으로 《退溪先生遺墨遺品特別展示目錄》에 그 書影과 함께 紹介되어 있다.⁽⁸⁾ 書影을 보면 木板本으로 前記한 明宗19年(1564)頃 平壤刊本과 같은 10行23字本이다. 다만 邊欄만 雙邊으로 되어 있다.

3. 宣祖6年(1573) 校書館印出 甲寅字本?

宣祖6년에 校書館에서 退溪의 〈後論〉을 붙여 《心經附註》를 刊行하려고 한 記錄은 《實錄》에 나타난다. 그 해 正月12日癸巳條에 보면, 校書館提調인 柳希春이가 《心經附註》는 退溪에게 跋尾 여러張이 있는데 議論이 精切하니 心經板本에 붙여서 刊行하여 攄소사라는 記事가

…希春…又陳曰 心經附註 李滉有跋尾數張 議論精切 請於心經板本 添刻以示學者…⁽⁹⁾

라고 나와 있다. 그날 저녁에는 承政院에서도 이 일에 대하여 啓를 올렸던 모양으로

(5) 李滉, 增補 退溪全書(서운: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1. 影印本), 三, p.107上. (以下「影印本」이라 略稱한다.)

(6) 上揭書, 二, pp.107上左~108下右.

(7) 上揭書, 三, pp.599 下左.

(8) 退溪先生遺墨遺品特別展示目錄.

(9) 朝王鮮朝實錄(서운: 國史編纂委員會·探求堂, 1968~1970. 影印本), 21, p.253 上. (以下「實錄」이라 略稱한다.)

外政院啓曰 經筵官所啓… 李滉所者 心經跋尾并刻印出事… 無發落取稟 傳曰… 心經跋尾并刻印出事 問于大臣⁽¹⁰⁾…

이라는 記錄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임금은 大臣들에게 물어서 決定하라 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그 이틀후인 14日乙未條에는 領相이 議論한 記錄이 있더라 나타난다. 그 記事에서

領相議 李滉所著心經跋尾 依經筵官所啓印出爲當 左相議 滉久於閑退 專意學問 見識精詣 其所著述必有發輝之益 既看心經 并此刊印未爲不可 領府事議 李滉心經後所論之說 小臣時未及見之 必其平生用力之書也 經筵官所啓之意 豈無所見哉然如此之事 問于一時主文者以定 上命領府事議施行 大提學盧守愼議 臣比見李滉心經後說 於心學多有所發明 因探論學者之意 欲附刊于諸學之後 與柳希春約先入侍春者啓之臣意 并印實無所妨 上答曰 從大提學議 ○傳李滉心經後說 於心學多有所發明 并刻于心經諸書之後事 下禮曹⁽¹¹⁾

라 한 것을 보면, 이 때의 議論에는 領議政·左議政·領府事 그리고 大提學이 있던 盧守愼 등이 參與한 것 같다. 그 論議에서 領議政은 “經筵官이 啓한 바에 따라 印出함이 마땅하다” 하였고, 左議政은 “退溪가 한가로히 물러나 學問에만 뜻을 쏟았으므로, 그가 지은 것은 더한 것이 있을 것인즉, 이미 《心經》을 보았으니 함께 刊行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으며, 領府事는 “退溪의 論한 바는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平生 힘쓴 글일텐데 이러한 것은 經筵官이 보지 않고서야 啓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임금께서는 領府事에게 命하여 施行하도록”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同席하였던 大提學 盧守愼은 “退溪의 心經後說을 보니 心學에 대하여 發明하는바가 많으니, 柳希春이나 여러사람의 啓에 따라 함께 印刷하는것도 無妨하다”고 贊成의 뜻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反對의 議論이 없으므로 임금은 大提學의 議論에 쫓아, 드디어 禮曹에게 그 刊行을 傳한것 같다. 그러나 그 傳言은 刊行의 主務處인 校書館에는 바로 傳하여지지 아니한것 같다. 그래서인지 校書館에서는 “《心經附註》는 理學에 要緊하고 또 退溪의 跋尾는 學者들에게 切實한 것이니 刊行하여 펴것”을 또 請하고 있다. 이는 네사람의 議論이 있는 보름後인 30日辛亥條의 《實錄》記事에

校書館啓曰 心經附註既繫於理學 李滉跋尾又切於學者 請印出流布⁽¹²⁾

(10) 上揭書, 同面 下右.

(11) 上揭書, 同面.

(12) 上揭書, 21, p. 254.

6 도서관학 논집

라는 記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사람의 議論과 校書館의 請에 의하여 退溪의 〈後論〉을 붙인 《心經附註》의 刊行은 곧 始作한 것 같다. 이때 校書館에서는 活字와 木板 두가지의 印刷方式을 모두 다 썼으므로, 어떤 방식에 의하여 《心經附註》를 처음 刊行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처음 印刷은 活字에 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것은 다음 3에서 論及한 內賜本の 字體나 版心이 活字本の 板下를 使用한 느낌이 있는 까닭이다. 이 當時의 印刷에 있어서는 우선 活字로 印刷하여 嚴密하게 校正을 본 다음에 다시 板刻하여 그 板木을 두고 使用한 경우가 많은 까닭에 그렇게 생각된다. 만일 活字로 板下本을 印刷하였다면, 使用한 活字는 甲寅字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는 字體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正祖가 東宮時에 壬辰字를 鑄造하도록 英祖에게 請할 때에 英祖는 甲寅字로 적은 《心經》을 준 記錄이 《實錄》에 남아있다. 즉 正祖20年(1796) 3월에 整理字의 鑄成이 끝나자 내린 敎文에서 正祖가

…予於壬辰在東 仰請大朝 以內下甲寅字所印心經·萬病回春二書爲字本 鑄五萬字藏之 是爲壬辰字⁽¹³⁾…

라 한데서 甲寅字로 적은 心經을 字本으로하여 壬辰字를 鑄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적은 甲寅字로 생각되는 책은 아직 發見되지 않고 있다.

4. 宣祖6年(1573) 校書館刊 木板本

宣祖 6년에 校書館에서 刊行한 木板本이 틀린없는 책은 그 實物이 남아 있어 알 수 있다. 이 木板本은 지금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故晚松金完變翁舊藏本과 誠菴古書博物館藏本이 있어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實査한 책은 晚松本인바, 이 책은 모두 4卷2冊으로, 크기는 세로가 37.3cm 이고 가로가 23cm인 線裝 方冊本이다.⁽¹⁴⁾ 이 책은 內賜本으로 앞表紙의 面紙에는

萬曆元年五月日
內賜
心經附註一件
命除謝
思

左承旨臣崔(手決)

(13) 上揭書, 46, p.637 上左.

(14) 請求記號 韓宗 C1--A 111p.

과 같은 內賜記가 있고, 卷首에는 「宣賜之記」라는 方形朱印이 찍혀있다. 이 內賜記에는 받은 사람의 官衙와 姓名을 오려버렸기 때문에 그 受領者가 누구 인가는 알 수 없으나, 날자가 宣祖6年(1573) 5月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앞에서 詳論한 退溪 後論并刊의 議가 있는지 4個月後에 이미 刊行되어 頒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校書館刊 木板本은 이보다 以後에 刊行한 여러 版本中에서 校書館에서 刊行한 것은 全部가 이 책 그대로의 編綴을 하고 있으므로, 參考로 그 編綴을 보던 아래와 같다.

第 1 冊

心經附註序 2序
 (題下에 「篋墩」이라고 小字로 雕刻되어 있으며, 文末에 「石勤」·「伊洛州原」이 라는 方形印이 두개 雕刻되어 있다)

心經總目 4張
 (總目에 이어, 眞德秀의 贊, 顔若愚의 贊에 대한 識文이 있고, 第4張 뒷面에는 〈心學圖〉가 있다)

心經附註卷一 34張

心經附註卷二 35張

第 2 冊

心經附註卷三 23張

心經附註卷四 35張

[心經序後](版心題) 3張

心經後論 6張

計 147張

그리고 卷之一 第 1張 前面의 版式을 보면

四周雙邊, 半匡: 24.7×16.8cm, 有界, 10行17字, 小字雙行, 版心: 上下黑口, 上下內向細文弁花紋 魚尾, (單線, 單絲)(或黑魚尾), 「心經卷一」張次「一」

과 같다.

이 校書館刊本은 需要者에게도 供給하였던 모양으로, 宣祖9年(1576) 과 宣祖18年(1585)에 各各 刊行된 《攷事撮要》속에 있는 〈書冊市淮〉條에도 記錄되어 있다. 이때 求한 것으로 보이는 책이 誠菴博物館本인데, 이 책의 表紙 뒷面에는 識記가 있고

萬曆六年戊寅三月日

8 도서판학 논집

이라는 날자가 記錄되어 있다는 것이, 그곳 藏書目錄에 보이고 있다.⁽¹⁵⁾ 또 晚松文庫에도 같은 版式의 一本이 있는데, 그 책 表紙의 襍接紙로 使用한 古文書의 날자에

「萬曆六年六月十七日…」

이라고 쓴 것이 있다. 이러한 날자들로 보아 宣祖11年(1578) 後까지도 《心經附註》의 冊板은 健在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아마도 壬辰戰時에 가서 燒失되었지않았나 생각된다.

5. 壬辰戰前 南原刊本

壬辰戰前에 南原에서 《心經附註》를 刊行한 것은 宣祖18年(1585)에 刊行된 《攷事撮要》에 記錄되어 있으므로 알려진 것이다.⁽¹⁶⁾ 이보다 앞서 宣祖9年(1576)에 覆刻한 《攷事撮要》에는 收錄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刊行時期는 宣祖10~17年(1577~1584) 사이인 것으로 推定된다. 南原에서는 같은 時期에 《聖學十圖》도 刊行한 일이 있으므로, 이는 當時의 全羅監司로 있던 退溪의 弟子인 具思孟(宣祖12年: 1579 在任)이나 金命元·具鳳齡(모두 宣祖16年: 1583 在任) 중의 한사람이 南原府에 命하여 刊行하게 하였거나, 南原都護府使로 있던 어느 한 사람이 刊行하였을 것으로 본다. 같은《攷事撮要》에 《漂海錄》이나《草堂集》도 記錄되어 있는 것도 同時에 刊行되었지 않았나 생각되나 알 수 없다. 이 南原刊本の 冊板은 壬辰戰時에 燒失된 것으로 보이니, 宣祖18年의 《攷事撮要》以外的 冊板目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南原에서 刊行한 《心經附註》는 아직 밝혀지지않고 있는데, 아마도 다음 6에서 言及하는 黑口 黑魚尾의 壬辰前刊本이 이에 該當되지 않나 생각되나 알 수 없다. 後考를 기다린다.

6. 壬辰前刊 黑口 黑魚尾 木板本

이 木板本은 分명한 刊記가 없어 알 수 없으나, 版式을 보나 紙質이 古함을 보나 壬辰戰前 刊行本은 틀림이 없다. 壬辰戰前 刊本에 관한 冊板目錄에는 前述한 여러 版本이 있는데 實物이 보이지 않는 南原刊本이 이에 該當되

(15) 誠菴古書博物館, 誠菴文庫目錄(서운: 同館, 1974), p. 222, No. 3—99.

(16) 魚叔權, 攷事撮要(서운: 南文閣, 1974, 影印本), 下, 第40張 前面.

지 않나 생각되는데, 斷定하기에는 이른것 같다. 왜냐하면 冊板目錄類에 記錄되지 아니한 刊本도 數없이 發見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黒口本은 두곳에 所藏하고 있음이 알려졌는데, 하나는 서울大學 校圖書館 일사文庫本이요,⁽¹⁷⁾ 다른 하나는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文庫本이다.⁽¹⁸⁾ 前者의 일사本은 全 4卷2冊中 第2冊은 四周雙邊本으로 補完한것이며, 後者는 卷一~二의 零本 1冊만 남아 있다. 이 六堂本은 1967년에 六堂文庫를 開設할 때에 展示된 일도 있어 널리 알려진 책이다.⁽¹⁹⁾ 이책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크기는 세로가 32.8cm 가로가 21.3cm인 線裝 方冊本이다.

그 編綴의 차례와 張次를 보면, 前記한 校書館本과 같다. 다만 이 文堂本에는 〈心學圖〉 다음에 「程氏復心曰…」云云의 글이 1張 補完되어 붙어 있다. 또 일사本에도 이 部分이 없는 것을 보면, 黒口本の 刊行時에는 이 한張이 없는 그대로 刊行한것 같다.

이 黒口本 卷一 第1張 前面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23.5×17.2cm. 有界, 10行17字. 版心: 上下黒口, 上下內向黒魚尾. 「心經卷一」. (張次)

와 같으니, 前記 校書館本 보다 版格은 약간 작아졌지만 다른 體裁는 그대로 본뜻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字體까지도 비슷한 것으로 보아 校書館系 版本임을 알 수 있다.

參考로 일사本에는 「秀山」·「金元平印」·「士進氏印」의 세 印記가 있고, 六堂本에는 「月城後人」·「李○○○」·「順吉」이라는 印記가 있음을 밝혀둔다.

Ⅲ. 17世紀 版本

7. 宣祖37年(1604)頃 慶尙道 新刊本

이 新刊本은 그 正確한 刊記가 있는 책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므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宣祖37年甲辰(1604) 12月2日丁未의 《實錄》記事에

成均館牒呈于禮曹 自祖宗朝 置尊經閣于泮中 多藏書籍… 變後書籍蕩然無存… 慶

(17) 請求記號 일사 貴 181.1—J562s

(18) 請求記號 六堂 貴 32—1

(19) 高麗大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文庫開設紀念展示目錄 (서울: 同所, 1967)

尚道四書三經·通鑑·家禮·心經等書 並皆新刊 自曹行文各道 各二三件印粧上送 藏于本館⁽²⁰⁾...

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成均館 尊經閣의 藏書들이 壬辰戰으로 없어진 까닭에 慶尚道에서 새로 刊行한 《心經》 등의 책을 올리와 두게 하자는 말이므로, 이 때보다 약간 앞서 《心經附註》가 慶尚道에서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韓國冊板目錄總覽》에는 慶尚道에서 刊行한 《心經附註》가 세가지 있는데 그 刊行場所는 慶州·星州·安東으로 되어 있으며 慶尚監營에는 板木이 없다. 이를 보면 慶尚道에서 新刊하였다는 《心經附註》는 慶尚監營에서 直接 刊行한 것이 아니라 慶州나 星州에서 刊行한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는 根據있는 資料가 나타날 때까지 保留할 수 밖에 없다.

8. 光海初年頃 校書館刊 木板本

이 刊本 역시 正確한 刊記가 있는 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光海5年(1613)에 刊行된 訓監字印本 《攷事撮要》의 〈書冊市淮〉條에

心經紙⁽²¹⁾

라 있는 것으로 보아 校書館에서 刊行한 《心經附註》가 있어 需要者의 供給에 應하였던 것을 짐작할 뿐이다.

이 때는 壬辰戰으로 因하여 校書館에 있었던 器物이 全部 없어졌던 터이므로, 宣祖6年(1573)에 刊行하였던 《心經附註》의 冊板도 함께 灰燼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慶尚道에서 新刊한 《心經附註》를 宣祖37年(1604)에 上送까지 하였을리 萬無하였을 것이다. 그런 事情이고 보면 光海5年(1613)에 一般의 要求에 應할 수 있을만큼 對備하기 위하여, 校書館에서 板刻을 行하여 刊行하였다는 것은 可能한 推測이다. 그렇다면, 校書館에서의 刊行時期는 宣祖38年~光海4年(1605~1612)사이가 될 것이다.

이에 곁들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增補文獻備考》에 있는 記事에

仁祖初 以三經及諺解·心經·近思錄等書 頒送兩界 又命譯五倫歌 頒布中外⁽²²⁾

라고 있는 것이다. 즉 仁祖初년에 《心經》등의 책을 咸鏡道와 平安道에 보내

(20) 實錄, 25, p.1.

(21) 魚叔權, 攷事撮要(光海 5(1613), 活字本(訓監字), 第38張 裏面.

(22) 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纂輯 校正(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影印本), p.5 上右.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낼려면 많은 책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 책을 구할려면 校書館에서 책을 찍어내는 것이 가장 적당한 方法이 아닌가 생각한다. 校書館에서 책을 찍었다면 그곳에 板木이 있었어야만 可能할 것이다. 한편 仁祖가 即位하자 곧 《續東文選》·《山谷集詩註》·《書傳大全》·《續武定寶鑑》같은 책을 活字로 찍어내어 頒賜하고⁽²³⁾ 또 여러가지 책을 刊行하려고 努力한 點을 생각한다면, 이 當時에 活字로 찍어서 보였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다. 仁祖가 《心經》에 關心이 큰 것은 仁祖10年(1632) 2月6日甲戌條의 《實錄》記事에 《近思錄》과 함께 《心經》도 講論할 것을 言及한 일이 있는 경우⁽²⁴⁾ 만 보아도 알 수 있다.

9. 日本 正保4年(1647)刊 木板本

이 책은 《韓國古書綜合目錄》에 日本 成實堂文庫本·中國 國立中央圖書館藏本·그리고 徽文高等學校藏本이 採錄되어 있어 일찍부터 알려져 있다.⁽²⁵⁾ 모두 4卷4冊으로 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正保四丁亥歲六月吉日
二條通澤田庄左衛門刊行

이라는 刊記가 있는것 같다. 阿部吉雄教授가 末松保和藏本을 보고 調査한 바⁽²⁶⁾에 따르면, 그 編綴의 차례는 前述한 宣祖6年(1573) 校書館本과 같으나 本文이 9行13字인 關係인지 張數에 약간의 差異가 있다. 즉 卷首가 9張·卷一이 36張·卷二가 38張·卷三이 31張·卷四가 46張으로 合計 160張이나 된다. 그리고 卷首에 있는 程敏政이 쓴 〈序〉는 模刻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總目〉은 9行으로 되어 있다.

10. 日本 慶安2年(1649)刊 木板本

이 책은 1965년에 阿部吉雄教授에 의하여 《日本朱子學と朝鮮》에 紹介됨으로써 알게 되었다.⁽²⁷⁾ 그 後 阿部教授는 《日本刻版 李退溪全集》에 그 全部를 縮少影印하여 收錄하였다.⁽²⁸⁾

(23)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 73.

(24) 實錄, 34, p. 469.

(25) 尹炳泰 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8), p. 445 右.

(26)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 東京大出版會, 昭和40), pp. 424~425.

(27) 上掲書, 同面.

(28) 李況,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阿部吉雄 編 (東京: 李退溪研究會, 1975. 影印本), 下, pp. 416~486. (以下「日本影印本」이라 略稱한다)

이 木板本은 모두 4卷1冊으로 되어있다. 卷首에는 明朝體로 쓴 每面 6行11字로 된 〈心經附註序〉 4張이 있다. 版心에는 上花口內에 “心經附註”라는 書名이 있고 魚尾사이에는 “序前”이라는 表示와 張次가 表示되어 있다. 序文의 끝에는 「石勣」과 「伊洛荆原」이라는 方形印이 雕刻되어 있다.

이어 〈心經總目〉 2張이 있는데 版心の 魚尾間에는 “總目”이라는 表示가 있다 經書에 限하여 墨蓋子로 되어있으며, 周子등 4人の 區分에는 雙邊으로 묶고 있다. 다음에는 〈贊〉과 顔若愚의 識가 있는데 그 張次는 三~四이며, 版心の 魚尾間에는 “贊”이라고 表示되어 있다. 第5張째에는 〈心學圖〉가 있는데, 그 곳 版心の 魚尾間에도 같은 “心學圖”라 表示되어 있다.

卷一 第1張의 版式을 보면

四周雙邊. 無界. 大字7行13字, 中字10行19字, (小字雙行). 片假名 返讀有. 版心: 「心經附註」上下內向黑魚尾(單線, 單絲)「卷一」(張次)下白口

와 같다. 이 卷一은 모두 31張이다. 卷二는 33張·卷三은 27張·卷四는 32張이다. 卷末에는 卷四의 張次에 繼續하여 第33~35張에 程敏政과 汪祚의 識文이 있는데, 그 版心の 魚尾間 表示는 “序後”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心經後論〉이 있다. 그 張次表示는 卷四에 이어져 第36~41張으로 되어 있으나, 版心の 魚尾사이에는 “後論”이라 表示되어 있다. 〈後論〉의 끝張인 第41張 뒷面 卷末題다음에는

慶安二年仲春日
村上平樂寺開板

이라는 木記가 있는데 四周雙邊에 界線이 들어 있다.

위의 版式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日本木板本은 우리나라에서 刊行한 책은 底本으로하여 刊行한것이며, 따라서 版式에 있어서도 본따려는 點이 눈에 뜨인다. 다만 行字數의 差異로 張次가 差異가 나고 있다.

本文에서의 特徵을 보자면 “附註”는 반드시 墨蓋子를 썼고, 그밖의 引用源은 雙邊으로 둘레를 싸서 區分하고 있다.

11. 顯宗13年(1672)內賜 戊申字本

이 戊申字本은 그 實物이 國立中央圖書館 一山文庫·誠菴古書博物館·大邱市立圖書館에 所藏되어 알 수 있다. 모두 4卷2冊인데 一山文庫本은 그 크기

가 세로는 35.1cm 가로는 22.2cm인 線裝 方冊本이다.⁽²⁹⁾

一山文庫本은 同春堂 宋浚吉에게 下賜한 책으로, 앞表紙 뒷面의 面紙에는 아래와 같은 內賜記가 있다.

康熙十一年八月二十三日
內賜議政府左叅贊宋浚吉
心經一件
命除謝
思

右丞旨臣李(手決)

이 內賜記로 보아 顯宗13年(1672) 8月23일에 頒賜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책의 印出은 같은 해의 7·8月頃이 아니었나 생각되나 《實錄》에는 아무런 記錄도 남아 있지않다. 그대신 이보다 8年前인 顯宗5年甲辰(1664) 10月28日丙戌條의 《實錄》記事에는 執義 李端相이가 顯宗에게 講學의 차례를 定할 때에는 이책을 먼저할 것을 上疏한 아래와 같은 글이 실려있다.

執義李端相應旨上疏略曰… 心經 其於心學 眞所謂指南之車 燭幽之鑑也 是以先王末年 特講此書 與宋時烈宋浚吉等 沉潛講究… 其時叅在玉堂 適得李滉初得此書 親自點絕注釋之冊 與館僚投筭以進 先王… 下教曰 自得此冊 有若李滉之親在左右 愚臣妄意竊以爲殿下宜繼先王講學之序 先講此書⁽³⁰⁾…

이와 같은 일이 있는 다음에 顯宗이 關心있는 《心經附註》를 印出하게 한 것은 當然한 일인것 같다.

이 顯宗13年(1672) 內賜本の 編綴한 차례는 宣祖6年の 校書館本과 같으며, 다만 卷首〈心學圖〉다음에 그 後語 1張이 더 있다. 그리고 卷一 第1張 앞면의 版式은 아래와 같다.

四周双邊, 半匡: 24.9×17cm. 有界. 10行17字. 版心: 上下白口, 上下 內向四升花紋魚尾(單線, 單孤)「心經卷一」(張次)

이 版式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內賜本은 校書館 系列의 版本임을 알 수 있다.

(29) 請求記號 일산 古.

(30) 實錄. 37, p. 409.

12. 肅宗即位年(1674)頃 校書館刊 木板本

이 版本은 그 實物이 나타나지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奎章閣에 所藏하고 있는 肅宗即位年(1674)에 戊申字로 印出한 《攷事撮要》속에 있는 〈書冊印紙數〉속에

心經 紙一卷十五張⁽³¹⁾

이라는 것이 있어, 이 當時에 校書館에서 民間의 需要에 따라 配布한 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木板本으로 刊行하지 않았나 생각되나, 紙數단 表示한 것을 보면, 前記 顯宗13年(1672) 內賜本과 같은 活字本일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民間에게까지 많은 量을 配布하려면, 역시 木板本으로 刊行하였을 可能性이 더 크다고 하겠다.

13. 肅宗10年(1684) 成均館刊本

이 成均館 刊本에 대하여는 《韓國書誌年表》“1684(甲子) 肅宗10年”條에

5月12日 成均館 四書三經大全 諺解 및 心經·近思錄을 刊行함⁽³²⁾

이라 있고, 또 《實錄》肅宗10年甲子 5月12日丁丑條에

成均館啓 刊四書三經大全諺解及心經·近思錄⁽³³⁾

이라는 記事가 있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正確한 刊記가 있는 《心經附註》의 刊本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萬一 木板本으로 刊行되었다면 여러가지 冊板目錄에 收錄되었을 터이나 보이지 않는다.

14. 肅宗11年(1685) 寧邊府刊 木板本

寧邊府에서 《心經附註》가 刊行되었다고 하는 것은 《鏤板考》에

寧邊府藏印紙三牒四張⁽³⁴⁾

이라는 記錄이 있어 일찍부터 알려져있었다. 이 冊板은 後에 妙香山 香山寺에 가져다 둔것 같으니, 憲宗6年(1840)頃에 編纂한 것으로 보이는 《各道冊板目錄》에서는

(31) 魚叔權, 攷事撮要 (肅宗即位年(1674), 活字本(戊申字)

(32) 註23同書, p. 87右.

(33) 實錄, 38, p. 689 下右.

(34) 徐有集, 鏤板考, 洪命彥 校訂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16), p. 82.

寧邊香山寺 容入紙 四卷十一張⁽³⁵⁾

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韓國典籍誌》에 의하면, 이 寧邊府 刊本の 實物은 서울 大學校圖書館 古圖書 및 想白文庫, 中國 國立中央圖書館,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 그리고 山氣文庫藏本이 알려져 있다.⁽³⁶⁾ 이 중에서 實査한 것은 高大本이다.

高大本은 모두 4卷2冊으로 그 크기는 세로가 34.7cm 가로가 22.5cm의 線裝 方冊本이다.⁽³⁷⁾ 그 編綴의 차례를 보면

第 1 冊

心經附註 (印이 없다)	2張
[心經附註] (版心題) (印이 없다)	3張
心經總目	5張
心經附註卷一	29張
心經附註卷二	30張

第 2 冊

心經附註卷三	24張
心經附註卷四	30張
心經後論	5張

計 128張

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心經後論》 第5張 뒷면 마지막 行에는

乙丑五月日 寧邊府開刊

이라는 刊記가 있다. 이 刊記는 서울 大古圖書本이나 山氣文庫本에서는

崇禎五十八年乙丑五月日 寧邊府開刊

이라 있으므로, 肅宗11年(1685) 5월에 寧邊府에서 開刊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에 刻手로 動員된 사람이 많았던 모양으로 아래와 같은 刻手銘이 여러 곳에 보인다.

峯~〈總目〉 第4張 版心 下白口.

宗~ 卷一 第15張 版心 上黑魚尾內.

(35) 各道册板目錄 (憲宗6(1840)頃, 寫本), 第31張 뒷면.

(36) 註3同書.

(37) 請求記號 CI-A111A.

上~ 卷二 第30張 版心 下黑魚尾內.

芝~ 卷三 第8張 版心 下黑魚尾內.

湜~ 卷三 第18 및 19張 版心 下白口內.

四~ 卷三 第14 및 15張 版心 上魚尾內.

山~ 卷三 第14 및 15張 版心 下魚尾內.

이 寧邊府 刊本은 그 底本이 明宗21年(1566) 文川郡 刊本이어서인지, 行字數나 板匡의 高가 비슷하다. 參考로 卷一 第1張 앞面的 板式을 보면 아래와 같다.

四周雙邊. 半匡: 20.3×15.6cm. 有界. 10行20字.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有 雙紋魚尾(單線)「心經一」(張次)

Ⅳ. 結 言

1. 結言과 要約

위에서는 16世紀와 17世紀에 刊行된 退溪의 〈心經後論〉이 붙은 《心經附註》의 版本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다른 版本들은 모두 14種이다. 이들을 다시 分析하여 보면,

(1) 刊行年度로 보아서, 退溪 生存時에 刊行된 것은 2種이며, 그 중에서 1種은 確實하다. 退溪 卒後에 刊行된 것은 12種 內外이다.

(2) 刊行方式으로 볼때에 活字로 刊行한것은 2種으로 推定되며, 그중 1種은 實物이 남아 있어 確實하다. 活字本들은 全部가 校書館에서 刊行한 것으로 보인다.

(3) 刊行地域으로 볼때 우리나라에서 刊行한 것은 12種으로 생각되며, 日本에서 刊行한 것은 2種이다. 우리나라의 12種中 刊行地가 分명한 것은 6種이며, 나머지 6種은 아주 不明하거나 校書館에서의 刊行이 推定된 것이다. 刊行地가 分명한 곳 중에서 地方에서 刊行한 것은 主로 木板本이며, 그 刊行地는 文川郡을 비롯하여 3個處이고, 그 外의 分명한 刊行處는 校書館이다.

(4) 邊欄은 1種을 除外하고, 6種은 雙邊이며, 特히 校書館 系統의 刊本에 두드러지고 있다.

(5) 行字數를 볼때 校書館 系統의 刊本은 대체로 10行17字이다.

2. 남은 課題와 提言

本考에서는 다루지 아니하였지만,

(1) 18世紀以後에 刊行된 《心經附註》의 版本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2) 〈心經後論〉의 內容과 引用書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3) 《心經附註》나 〈心經後論〉의 影響을 받은 著作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하는 등등의 問題는 앞으로 繼續하여 究明되어야만 하겠다.

이와같은 研究는 보다많은 版本의 出現과 自由로운 公開가 있어야만 完全을 期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研究를 이룩하는데 있어 資料의 惠覽과 複寫를 許諾하여주시는 여러 圖書館과 그 職員에게 感謝를 드린다.

參 考 文 獻

金然. 海東文獻總錄. 서울, 學文閣, 1969. 影印本.

前問恭作, 編. 古鮮冊譜. 東京, 東洋文庫, 昭和19~32. 全3冊中 第2冊.

徐有渠. 鑱板考, 洪命燾 校訂.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16.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 東京大出版會, 昭和40.

尹炳泰. 朝鮮典籍誌.

尹炳泰.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8.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尹炳泰. 韓國冊板目錄總覽.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魚叔權. 攻事撮要. 서울, 南文閣, 1974. 影印本.

李滉.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阿部吉雄 編. 東京, 李退溪研究會, 1975. 影印本. 3冊.

李滉. 增補退溪全集.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1. 影印本. 5冊.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5~1958. 影印本. 48冊. 總索引, 1冊.

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纂輯 校正.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影印本.

眞志秀. 心經附註. 程敏政 附註. 서울, 東洋文化社, 1976. 影印本.

The Editions of the *Hsin-Ching-Fu-Chu* with the
Postscripts of Toegye, published between 16th
and 17th Centuries.

Yun, Byeong-Tae*

[Abstract]

This is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editions of the *Hsin-Ching-Fu-Chu* published between 16th and 17th centuries, together with the postscript written by Yi-Hwang.

For this research, 14 kinds of the editions are studied, the results of which are analyzed as follows;

(1) The publishing date: 2kinds of the editions are published before 1969, and 12 kinds after 1569 when Yi-Hwang died.

(2) The methods of publishing: 2 kinds were printed by movable types, the others by block-plates.

(3) The publishing place: 12 kinds were put out in Korea, and 2 kinds in Japan. The publishing places of 6 kinds of Korean editions are known. They are Muncheon-Gun, Gyoseokwan, etc..., For other 6 kinds of Korean editions, the publishing places are unknown.

(4) 6 kinds of editions were printed in the double-border-line style, and consisted of 10 lines, each line having 17 characters. Such forms are regarded as the traces of the printing style of Gyoseokwan. One kind of edition was printed with single-border-lin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